

만약 당신이 분노로 떨 수 있다면

받는 이:

모로코 (마리프) 카사블랑카 36번지

마리아 조자리오 게바라 양

동지여,

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가족이 스페인의 어느 지방 출신인지 잘 모릅니다.

물론 나의 조상들이 극심한 가난을 피해 스페인을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만약 내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곳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.

내 생각에 당신과 내가 가까운 친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로 떨 수 있다면 우리는 동지입니다.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혁명의 인사를 전하며,

“조국이 아니면 죽음을! 승리하자”

1964년 2월 20일 아바나에서
사령관 체 게바라